

2022 경기예술지원 2차 【 원로예술활동 지원-문학분야 】 심의평

이번 2022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의 원로 예술활동지원 사업은 우리 문학에서 창작 생태계의 토대를 구축해온 문학적 선배들의 노고를 존중하며, 국내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로예술인 세대의 창작 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수의 지원사업이 청년 세대 위주로 편중된 현실 속에서 특정 세대의 예술활동지원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작년부터 본 트랙을 신설하여 문학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

감염병 출현 이후 창작 환경이 급변하면서 원로예술인들의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문학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던 기성의 문화적 장소들이 사라지고, 예술문화가 비대면 체제로 전환되면서, 비대면 문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로예술인들은 지속적인 작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로예술인들은 지원 정보를 공유하거나 독자와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 작품 홍보 채널을 확보하는 것에도 가장 어려움이 큰 세대다. 세대별 발성이 우리 문학 내에 다양하게 공존해야 장기화된 감염병 사태가 하릴없는 문화적 재난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문학 분야는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100%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되었다. 시와 아동문학, 소설, 수필, 그리고 기타 장르에서 다양한 형식의 원고가 접수되었고, 심사자들은 1차 서류심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예술과 지역예술의 토대를 구성해온 원로들의 현재적 작업을 기쁜 마음으로 마주하였다. 개별 심의위원이 평가한 내용들을 토대로 2차 토론심의를 진행하였고, 원숙한 언어를 통해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었던 작품 30건을 지원작으로 선정하였다.

본 지원사업은 원로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문학장에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통해 문학 복지 또한 실천하고 있다. 매우 뜻깊은 사업이므로, 지원사업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로문학인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창작의 열의를 한시도 놓지 않으며, 문학계의 발전에 헌신해온 원로예술인들의 작업이 더 많이 조명되고 지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지원사업의 취지가 문학적 갱신의 모범을 보여온 원로 문인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후배 문인들의 지속적인 창작에도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다만 블라인드 심의방식만이 정말 공정한 것인가의 문제는 차후 원로예술인 지원사업 운영시 숙고해야 할 지점이라 판단한다. 블라인드 심의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공정해 보이나, 존경받는 ‘원로’의 개념을 기계적인 나이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원로예술인’이라는 의미가 ‘고령예술인’의 개념으로 단순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블라인드 심의를 통해 사전 정보나 편견 없이 작품 자체의 예술성에 집중해서 평가할 수는 있었지만, 원로예술인의 작품을 평가할 때는 과거의 활동실적을 일괄적으로 심의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원로예술인의 경우는 작품 활동의 통시적인 흐름 속에서 생애주기별 작품의 변천사와 문학적 성취의 축적성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모식의 블라인드 심사방식이 명예를 중시하는 원로 예술인들을 진정 예우하는 방식인지도 고

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활동을 시작했거나 창작 이력이 지나치게 짧은 고령의 문인들보다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독자와 후배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원로 문인들을 존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의 의의와 성격을 분명히 하여야 지원사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수혜자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수 있다. 현장의 의견을 섬세히 수렴하여 본 지원사업이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5.10.

심의의원 전해수 (문학평론가)
 이경호 (문학평론가)
 노지영 (문학평론가)